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연간 수입보험료 1조 위안 시대 개막

□ 2009년(1월~12월) 중국 보험업계는 연간 수입보험료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서며 전년대비 13.8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
- 재산보험(손해보험)은 총 2,875.8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3.1% 급성장하였고, 인보험(생명보험)은 8,261.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.9% 성장함.
- 총 자산액은 전년대비 21.6% 확대된 4.1조 위안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4조 위안을 돌파하였으며, 운용자산 역시 3.7조 위안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임.

중국 보험업계 주요 경영 실적

	2008년(전년대비 증가율)	2009년(전년대비 증가율)
총 수입보험료	9,784억 위안(39.1%)	1조 1,137억 위안(13.8%)
- 재산보험	2,337억 위안(17.0%)	2,876억 위안(23.1%)
- 생명보험	7,447억 위안(47.8%)	8,262억 위안(10.9%)
지금보험금	2,971억 위안(31.2%)	3,125억 위안(5.2%)
자산총액	3조 3418억 위안(15.2%)	4조 635억 위안(21.6%)

자료 :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circ.gov.cn>)

□ 통계를 발표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함.

- 재산보험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지나친 자동차보험 의존도가 낮아지고 농업보험, 신용보험, 프로젝트보험 부문이 각각 21.0%, 91.3%, 31.6% 성장함.
- 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19.5% 증가하였고, 신계약 보험 중 분할납 비중이 25.2%를 점유하는 등 질적 성장의 토대가 마련됨.
- 위험예방과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경영효율이 증대된 결과 전체 보험업계가 거둔 이익은 530.6억 위안(인보험: 434.6억 위안, 재산보험: 96.0억 위안), 투자수익 및 수익률은 각각 2,141.7억 위안, 6.41%를 기록해 당초 기대치 보다 양호한 실적을 시현함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신화망, 1/21)